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홍보 시동

버스·공항·편의점 등 전방위 전략 내세워... 하계올림픽 홍보관 조성·대형 행사 현장 홍보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홍보 캠페인을 본격화하며 전국적인 추진 열기 확산에 나섰다.

‘작은 도시의 큰 꿈’은 이제 도민들의 일상 속에서 전국으로, 전 국민의 마음속으로 번지고 있다.

조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단장은 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전주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에서 계획하는 홍보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조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단장은 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하계올림픽 국내 홍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가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도청 1층에는 ‘전주 하계올림픽 홍보관’이 이날 중 새롭게 문을 연다.

‘Life is the Olympics’를 주제로 한 이 공간은 전주 유치의 3대 전략과 추진 방향, 경제·문화·관광적 파급 효과를 시작적으로 구성해 민원인과 방문객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여름철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에서도 현장 홍보가 강화된다.

춘천 코리아오픈국제대관도대회,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전북현대 홈경기, 보령 머드축제,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등에서 현수막, 포토존, 리플릿,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전주 유치의 의미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전북현대 경기장에서는 ‘썬! 썬! 썬!’ ‘올림픽 퀴즈 이벤트’ 등 관중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분위기와 SNS 확산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SNS 인증 릴레이, ‘올림픽 데이런 (Day Run)’, 전 국민 참여형 썬리지 등 온라인 중심의 캠페인도 함께 전개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올림픽 유치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해외 직접 홍보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전주의

매력을 세계에 소개할 방침이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스포츠클라이밍 세계선수권,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간접적 글로벌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장은 “올림픽 유치는 단지 전주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적 도전과제”라며, “앞으로도 스포츠와 문화를 연결 고리로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토대 마련

민주 이춘석 의원,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익산시의 숙원 사업인 국립식품 박물관 건립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설립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조치이다.

현재 식품산업은 한식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인식 제고와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식품산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국가식품러

스터를 중심으로 국내 식품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립식품박물관을 유치해 산업의 허브이자 홍보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익산 지역공약으로, 이춘석 의원의 제22대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공약 이행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산업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세부 기준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김교홍·김동아·김용만·김윤덕·문정복·문진석·윤준병·이연희·조계원·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만호 기자

담수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

민주 윤준병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 9일,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새만금사업 일부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국토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방조제로 외해가 차단되면서 조성된 담수호의 수질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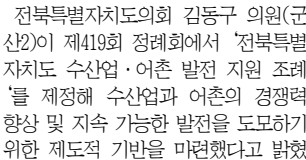
생활하수, 농업·축산 폐수 등의 오염원이 계속 유입되면서 COD, 총질소, 총인 등 주요 수질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과 퇴적물 축적으로 생태계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어업 기반이 약화되고 주민 생계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은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근 해역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수산업·어촌 발전 위한 지원제도 마련

김동구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자치도의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도지사가 수산

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치유·재활 지원, 은급복구비, 재해보험 등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피해 지원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제9대 군산시의회 4기 예결특위·윤리특위 구성



〈예결특위 위원장〉 김영란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 박광일 의원

제9대 군산시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군산시의회는 9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 및 윤리특별위원 선임 건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갑영란 의원(위원장) △양재용 의원(부위원장) △우종삼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우 의원 △박경

태 의원 △윤신애 의원 △한경봉 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광일 의원(위원장) △최창호 의원(부위원장) △우종삼 의원 △양재용 의원 △김경우 의원 △박경태 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028년 6월까지 1년간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스마트농업발전연구단체, 제주시서 벤치마킹

남원시의회 스마트농업발전연구단체(대표의원 김한수)는 지난주 제주시 일원에서 2박3일 간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스마트농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 농업 모델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남원시 농업의 혁신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제주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컨테이너 식물공장을 활용한 기능성 작물 실증 재배

현장을 견학했다.

이어 연구단체는 제주삼다물로에 현장에서는 알로에의 재배부터 가공,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고, 영농조합법인이 겪는 유통 및 판로 확대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재명정부 첫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레이스 본격화

호남 경선, 사실상 승부처... 정국 주도권 향방 가늠 분수령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첫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국민적 관심 속에 막이 올랐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오는 26일 호남 경선이 사실상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접수가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향후 당의 노선과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한 리더십’ 정청래·‘통합의 리더십’ 박찬대, 당권 도전 최고위원 출마 예상자는 현재 1명... 26일 광주서 호남 경선

그는 전투력과 투쟁력을 앞세운 정치 스타일로 존재감을 키워왔다.

반면 3선 박찬대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을 맞춰온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표방하고 있다. 온건하고 설득력 있는 이미지로 중도층과 친명계의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야 정확한 경쟁 구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황 후보만 단독 출마할 경우 당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호남이 핵심 승부처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일반 국민 30%의 투표 비율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넘는 권리당원이 호남에 포진해 있어 26일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치러지는 호남 경선이 사실상 당락을 가를 핵심 승부처로 부상했다.

당초 전북에서 개최하려던 호남 경

선은 집합 장소 확보 어려움으로 광주여자대학교로 최종 확정됐다.

전북 지역 정치권은 양측 후보들과의 친분도와 향후 공천권 영향을 고려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찍부터 양 후보 중 한 후보를 선택해서 지지하는 의원이 있고 중립을 지키는 의원도 보이는 등 후보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후보자 접수를 받은 후 19일 총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일정은 19일 총청권(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1·2홀), 20일 영남권(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6일 호남권(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 27일 수도권(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8월 2일 서울·강원·제주(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치러진다.

최종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8월 2일 선출된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현안업무보고 청취

당직제도 변화·군산형 마을 돌봄 등 의원들 5분 발언 잇따라

항만법시행령 개정 관련 ‘군산항’ 명칭 반영 건의안 등 채택

게 실질적인 접근권을 제공해 복지의 형평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신애 의원은 새 정부의 민주당 공약집에는 ‘초등학생·어르신 돌봄’이 포함되어있으며, 특히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운동회 초등돌봄’ 도입을 제시했고, 현재 군산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기초돌봄협의체’에 군산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새 정부 공약대로라면 이 협의체의 운영 주체가 군산시로 전환되어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산형 마을 돌봄’을 적

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의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007억1,100만원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금액이 2,221억7,900만원, 보조금 반납액 145억5,800만원이 포함되어있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639억7,400만원이고, 세입의 경우 미수과태료 117억5,800만원을 포함, 총 미수액이 232억 6,100만원으로 나타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서에서 올라온 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의회의(회장 김우민)가 2025년도 제276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와 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나중대·윤세자·윤신애·한경봉·김영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나중대 의원은 군산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 주·야간에도 3명의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직근무 상당 부분이 단순 민원안내, 전화응대, 시설점검 등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당직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세자 의원은 재가 외상 장애인을 위한 방문 이·미용서비스가 이들에